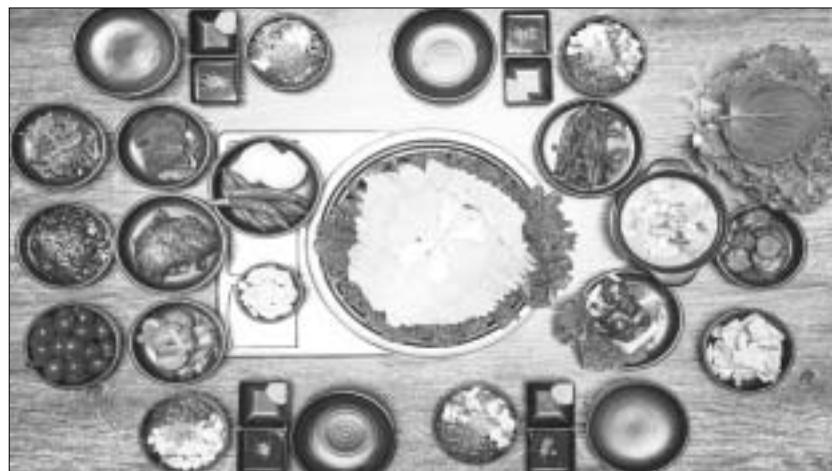


목포시, 맞춤형 컨설팅

우수 외식업소 육성

전문 컨설턴트 경영 진단·홍보 지원



목포시가 지역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우수 외식업소를 육성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영업활성화를 목

적으로 총 15개 업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16일부터 지원대상 업소를 모집하며, 사업공고일인 16일 기준 목포시에서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30일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목포시 양일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팩스(061-270-8569), 이메일(jyj090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소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현지 업소를 방문해 상권분석, 경영진단, 메뉴 분석, 홍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파악·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서도 흔들림없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외식업 발전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강진군,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 전지훈련 구슬땀

매일 35도가 넘나드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강진군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중·고등부 배드민턴 선수들의 땀방울로 경기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여름철 전지훈련 기간을 맞아 강진군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동계훈련 때 참여했던 배드민턴선수들의 재방문으로 이루어진 하계전지훈련을 겸한 초청경기를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강진군에서 주최하고 강진군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진 제2실내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전국에서 250명의 중·고등부 선수들이 참여하여 4개 부문 대회(남녀 각각 중·고등부)를 치르고 있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는 한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안세영(광주체고1) 등이 참가하여 미래의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경쟁을 통한 기량 확보 및 우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이승우 강진군수는 대회 준비 관련 "전국에서 오는 중고등학교 선수 및 관계자들이 하게 전지훈련을 겸한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고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스포츠의 메카인 강진이 앞으로도 많은 대회를 개최하면서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해남군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효과 '톡톡'

해남군이 축사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둔사 냄새 저감 프로젝트가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2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육환경을 개선해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고 농업인의 보건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관내 5개소 둔사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축 음수와 악취제거를 위한 OH라디칼(수산기)을 도입하고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했다.

또 산소음이온계 천연물질인 OH파디칼은 강력한 살균력과 탈취력으로 건강한 물을 제공하고 병원균을 박멸과 악취를 제거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어 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태성환경연구소 전문 악취 측정기관과 연계해 개선 사항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52ppb에서 24ppb로 53% 저감됐으며, 메탄가스는 4%에서 1%로 내독소는 13%에서 65%로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사업 2년차로서 3억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을 위한 둔사 환경 개선 공사 및 퇴비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진도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진도군이 오는 9월 27까지 54일 동안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

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 06. 30.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 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

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도서관, 독서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영암도서관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11개의 다양한 맞춤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경험에 풍부하고 수준 높은 강사진들이 각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도서관에서 신작분 방문 접수하며 강좌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영암도서관에서는 '북쪽북쪽 책놀

이', '창의력 코딩', '책놀이와 동화구연', '원예놀이', '페리도 주얼리' 야간에는 '서예교실', '향기를 느끼는 힐링' 등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인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영암도서관 관계자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익한 정보 제공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061-470-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 위해 전력

완도군은 올해 초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2020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8월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3일, 신우철 완도군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을 통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및 타당성 조사비 지원 요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립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 추가 사업비 지원 등 3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드렸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를 보유하고 있고, 산림 생태가 우수한 완도가 국립난대수목원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부활)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LPG 용기와 등유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세대별 양전 계량기를 설치하여 안정성 확보 등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요청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통합건강 홍보관 운영 큰 호응

금연·비만 상담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무안군은 지난 9일과 13일 낙약건 강생활치료센터에서 열린 남약지역 어린이·청소년·꿈과 희망 콘서트와 연계해 통합건강 이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통합건강 이동 홍보관'에서는 금연상담, 음주고글체험, 개인별 체성분 및 스트레스 측정과 함께 비만상담, 신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금연·질주관에서는 CO측정과 1:1 금연상담, 폐활량 측정, 가상 음주 체험을 실시했으며, 통합건강관에서는 체지방 및 스트레스 혈관건강 측정을, 비만과 관련해서는 지방량과 균육량 홍보모형을 전시해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흡연 및 비만의 건강 유해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밖에도 각종 인체 장기모형인 혈관모형, 폐의모형, 주기별 태아모형 등을 전시해 홍보를 극대화 시켰다.

특히 현자증과 주세에 있는 청소년 비만은 상당히 중요한 국민건강 문제로 되어 있어 비만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약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약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안내 등 건강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